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여름날 나는 얼음과자를 사 먹기 위해 아버지의 지갑에서 천 원짜리 한 장을 훔쳤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압도적이었다. 천 원짜리가 한 장만 있었다면 몰라도 다섯 장이나 있었다. 다섯 장 가운데 한 장 없어진 걸 어떻게 안단 말인가. 아버지가 그렇게 꼼꼼한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돈을 빼내고, 얼음과자를 사기 위해 달려가고, 마침내 그 달콤하고 차가운 얼음과자를 입에 넣고 빨 때까지 나의 범죄가 들통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 단단한 확신의 원천은 욕망이었다. 달콤하고 시원한 얼음과자를 입에 넣고 빨아먹고 싶은 너무 큰 욕망이 염려와 불안을 잠재웠다. 그러나 얼음과자의 부피가 줄어들고 숨어 있던 막대가 드러나면서 염려와 불안은 서서히 깨어났다. 그렇게 단단하던 확신은 어느 순간 얼음과자 녹듯 녹아 흘렀다. 아버지가 천 원짜리 한 장 없어진 걸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다는 쪽으로 생각이 급격히 기울었다. 안도의 구실이 되어 주었던 다섯 장이라는 지폐의 숫자도 다르게 해석되었다. ㉠천 원짜리가 고작 다섯 장밖에 없었지 않은가. 다섯 장 가운데 한 장 없어진 걸 어떻게 모른단 말인가. 아버지가 그렇게 주의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얼음이 녹아 손등으로 흐르고 얼음 속에 숨어 있던 동그란 막대가 거의 다 드러날 즈음 얼음과자는 내 입 안에서 다만 얼얼할 뿐 더 이상 아무 맛도 내지 않았다. 잊고 있었던 두려움이 서서히 몰려왔다. 막대를 빨고 있는 내 모습을 본 친척 누나가 돈이 어디서 나서 그걸 사 먹느냐고 물었을 때 내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누나는 고자질을 할 것이다. 아버지가 지갑의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손에 들고 있는 얼음과자의 막대가 몽둥이처럼 여겨져서 나는 얼른 길바닥에 버렸다.

그러자 이내 학교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에게 품었던 것과 같은 바람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났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 바람은 거의 무의식적인 것이었다. 나는 내가 무얼 원하는지도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 그저 종아리와 엉덩이에 떨어질 몽둥이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마음속의 바람이 하필이면 그때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돌아오긴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야단칠 수 없는 몸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타고 있던 이웃 어른의 트럭이 언덕 아래로 굴렀다고 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운전을 한 이웃 역시 취한 상태였다. 아버지가 취한 것은 괜찮지만, 운전자가 취한 것은 괜찮지 않았다. 병원에 옮겨진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일주일을 살았다. 그리고 천원의 행방을 따지지 않고, 따질 수도 없는 곳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아버지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나’는 큰덕에서 살게 되고,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이후 방위병으로 근무하기 위해 고향에 내려온 ‘나’는 동갑내기 사촌인 규와 함께 지내며 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내 신경의 어떤 부분을 건드린 것은 소설 속의 소설가, 나아가 그 소설을 쓴 소설가가 그 지루하고 장황한 자기변명을 끈질기게 되풀이함으로써 얻어 내려 하고 있는, 마침내 얻어 냈을 효과였다. 확실하고 또렷하게 그 효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지만, 그 순간 나는 소설을 왜 쓰는지 온전히 이해했다고 느꼈다. 어떤 의식의 반영이었는지 분명치 않은 채로 나는 문득 그 소설을 한 권의 일기장처럼 인식했다. 아마도 소설가는 따로 일기를 쓰지 않겠구나, 적어도 이 소설가는 따로 일기를 쓸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여름 한낮 폭우가 쏟아지듯 느닷없이, 그야말로 불쑥 덮쳤다. 폭우는 조금 더 쏟아졌다. 나는 낡은 일기장을 버리고 새 일기장을 가지고 싶어졌다. 그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충동이었다. 생각해 보지 못한 의외의 열망에 사로잡혀서 나는 무언가를 끼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소설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소설이 아니라 일기,

㉔ 새로운 방식의 일기를 쓴다는 의식에 붙들려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우선 숙제를 하지 않은 날 아침, 담임 선생님이 아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거나 갑작스럽게 전근을 가는 상상을 하는 장면부터 써 나갔다. 학교 앞 가게에서 구슬 몇 개를 훔치는 이야기도 썼다. 우연히 눈이 마주친 같은 반 친구의 눈빛에서 시작된 건잡을 길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도 썼다.

[A] .....그가 ‘우리 반 반장은 도둑놈이래요’ 하고 떠들고 다니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영사되는 바람에 미칠 것 같았다. 어쩐 일인지 그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언제 도둑놈 소리를 듣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불안하고 무서웠다. 나는 그 친구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바라고 시작했다. 아프든 죽든(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탄식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특별히 내 머릿속에만 악마가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사실 꼭 악마에게 떠넘길 일도 아니다. 나는 어린아이들이 순진하다는 믿음은 어른들이 내놓고 속아 주는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순진하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순진함은 때로,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왜냐하면 순진하니까, 악마를 연기하곤 한다. 악마가 순진함의 외양을 가지고 있든, 순진함이 악마의 내용을 가지고 있든 무슨 차이란 말인가!) 어떻게든 사라져 버리라고 주문을 외기도 했다. 물론 내 바람과 주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밤에 쓰고 아침에 출근했다. 지난밤에 쓴 글을 다음날 밤에 지우고 다시 쓰는 일을 반복했다. 어떤 부분은 열 번도 더 고쳐 썼다. 중간에서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했다. 문장은 낮은 포복으로 아주 조금씩 나아갔다. 문장을 쓰는 동안 내 안에서 드러내려는 욕구와 은폐하려는 욕구가 치열하게 싸운다는 걸 나는 알았다. 문장들은 서로 부딪치고 충돌하고 갈등했다. 그 때문에 **모순에 가득 찬 피투성이의 문장들이 만들어졌다.** 앞에 쓴 문장을 덮기 위해 새로운 문장을 고르는 식의 글쓰기는 진을 빼내는 작업이었다. 나는 피곤과 수면 부족과 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가학적 열망에 붙들려** 끈기 있게 문장들과 싸웠다. **무엇에 썬 것 같은 시절**이었다.

- 이승우, 「오래된 일기」 -

18. 윗글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제적 형편 때문에 소설가의 꿈을 포기했다.
- ② 어릴 적 친척 누나와 함께 아버지의 돈을 훔치곤 했다.
- ③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아버지가 죽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 ④ 학교 앞 가게에서 구슬을 훔치고 난 뒤 불안감에 사로잡혀 지냈다.
- ⑤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원망했다.

19.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의 심리를 추적하고 있다.
- ② 인물이 주목한 다른 인물들의 과오에 대한 평가를 나열하고 있다.
- ③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의 일에 대한 내적 목소리를 삽입하여 인물 자신의 행위를 조명하고 있다.

20.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지갑 속 천 원짜리 다섯 장에 대한 ‘나’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 ② ㉒: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며 ‘나’가 두려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 ③ ㉓: 아버지에 대한 ‘나’의 바람이 오래도록 지녀 왔던 생각임을 알 수 있다.
- ④ ㉔: ‘나’가 글쓰기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 계기가 갑작스러우면서도 강렬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㉔: ‘나’가 소설을 쓰고 있다는 의식 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글을 쓰는 데 몰두하였음을 알 수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죄의식은 서사의 출발점이 되고 서사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자아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 쓰기는 자아의 치부를 드러내려는 욕망과 은폐하려는 욕망의 힘겨루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은 자기 변명을 통해 고백의 부담을 덜면서 자기 정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준다.

- ① ‘나’가 ‘소설을 왜 쓰는지 온전히 이해했다’는 것은, 소설 쓰기가 자기 변명을 통해 자기 정화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나’의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가 ‘새 일기장을 가지고 싶어’진 것은, 담임 선생님, 친구, 아버지와 관련하여 ‘나’가 느끼고 있는 죄의식이 서사의 동력이 되었기 때문이겠군.
- ③ ‘나’가 ‘다시 쓰는 일을 반복’하며 ‘열 번도 더 고쳐 썼다’는 것은, ‘나’가 치열한 자아 성찰을 바탕으로 소설 쓰기를 지속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가 ‘모순에 가득 찬 피투성이의 문장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나’의 소설 쓰기가 드러내려는 욕망과 은폐하려는 욕망의 힘겨루기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해 주는 것이겠군.
- ⑤ ‘나’가 ‘가학적 열망에 붙들려’ ‘무엇에 썬 것 같은 시절’을 보낸 것은, 소설 쓰기가 수반하는 피곤과 수면 부족 등의 육체적 고통이 ‘나’의 고백의 부담을 덜어 주었기 때문이겠군.

[22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몰아라 어서 보자 총석정 어서 보자  
총석정 종단 말을 일찍이 들었거니  
바람 불면 못 보려니 몰아라 어서 보자  
벽해 위의 높은 집이 저것이 총석정인가  
올라 보니 후면이라 전면으로 보오리라  
배 대어라 사공들아 풍량이 일지 않아  
충파로 돌아 저어 총석 전면 보게 하라  
배 띄워라 굽이마다 따라 저어 볼 양이면  
영소전 태을궁\*을 지으려고 경영턴가  
돌기둥 천백 개를 육모로 깎아 내어  
개개이 묶어 세워 몇 만 년이 되었던지  
황량한 데 벌였으니 배 없어 못 실린가  
(중략)

하우씨 도끼뿔이 용문을 뚫었으나  
이 돌\*을 만났으면 이같이 깎을세며  
영장\*이 신묘하여 코끝의 것 찍었으나  
이 돌을 다듬는다고 이같이 곧을쏘냐  
어떠한 도끼로 용이히 깎았으며  
어떠한 승묵\*으로 천연히 골랐는고  
끈 없이 묶었으되 틈 없이 묶었으며  
풀 없이 붙였으되 흔적 없이 붙였으니  
공력을 이리 들여 무엇에 쓰려 하고  
한 묶음씩 두 묶음씩 세운 듯 누인 듯  
기괴히 꾸몄다가 세인의 노리개 되야  
시 짓고 노래하여 기리기만 위한 것인가  
통천의 총석정과 고성\*의 삼일포며  
간성의 청간정과 양양의 낙산사며  
강릉의 경포대와 삼척의 죽서루며  
울진의 망양대와 평해의 월송정은  
이 이른 관동팔경 자웅을 의논 말라  
천하의 두 총석은 웅당 다시 없으려니  
물로는 동해수요 뒤편은 금강산과  
폭포로는 구룡이오 돌로는 총석이라  
장관을 다한 후의 다시금 혼자 말이  
괴외기절\* 하온 사람 이같은 이 있다 하면  
천 리를 멀다 말고 결단코 찾으리라

— 구장, 「총석곡」 —

- \* 태을궁 :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
- \* 이 돌 : 총석정 주변의 기암괴석.
- \* 영장 : 영험한 장인.
- \* 승묵 : 먹통에 딸린 실줄.
- \* 괴외기절 : 빼어나게 뛰어난 인걸.

(나)

㉠ 청산은 에워싸고 녹수는 돌아가고  
석양이 거들 때에 신월(新月)이 솟아난다  
안전(眼前)에 일존주\* 가지고 시름 풀자 하노라 <제1수>

내 말도 남이 마소 남의 말도 내 앓겠네  
고산 불고정\*이 좋아 늙는 몸이로되  
어디서 망령 난 손이 검다 희다 하나니 <제4수>

엇그제 빛은 술이 다만 세 병뿐이로다  
한 병은 물에 놀고 또 한 병 뒀에 놀며  
이밖에 남은 병 가지고 달에 논들 어떠리 <제6수>  
— 장복겸, 「고산별곡」 —

\* 일존주 : 한 통의 술.

\* 고산 불고정 : 전북 임실에 있는 정자.

(다)

이렇게 맥고모자를 쓰고 빠루\*를 마시고 친구를 생각하기는  
그대의 언제나 사랑하는 털게에 청포채를 무친 맛나는 안주  
탓인데 나는 정말이지 그대도 잘 아는 함경도 함흥 만세교 다  
리 밑에 남이 오는 털게 맛에 해가우손이를 치고 사는 사람입  
네. 하기야 또 내가 친하기로야 가재미가 빠질쩍네. 회국수에  
들어 일미이고 식해에 들어 절미지. 하기야 또 버들개통구이가  
좀 좋은가. 횃대 생성 된장지짐이는 어떻고. 명태골국, 해삼탕,  
도미회, 은어젓이 다 그대 자랑감이지. 그리고 한 가지 그대나  
나밖에 모를 것이지만 꿩메리는 아래 주둥이가 길고 쫄치는  
위 주둥이가 길지.

이것은 크게 할 말 아니지만 산뜻한 청삿자리 위에서 전복회  
를 놓고 함소주 잔을 거듭하는 맛은 신선 아니면 모를 일이지.

이렇게 맥고모자를 쓰고 빠루를 마시고 전복에 해삼을 생각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습네. 칠팔월이면 으레이 오는 노랑  
바탕에 꺼먼 등을 단 제주 배 말입네. 제주 배만 오면 그대네  
물가엔 말이 많아지지. 제주 배 아즈맹이 몸집이 절구통 같다  
는 등, 제주 배 아맹인 조밥에 소금만 먹는다는 등, 제주 배  
아즈맹이 언제 어느 모퉁고지 이숙한 바위 뒤에서 혼자 해삼  
을 따다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등…… 참 말이 많지. 제주 배  
들면 그대네 마을이 반갑고 제주 배 나면 서운하지. ㉡ 아이들  
은 제주 배를 물가를 돌아 따르고 나귀는 산등성에서 눈을 들  
어 따르지. 이번 칠월 그대한테로 가선 제주 배에 올라 제주  
색시하고 살렵네. 내가 이렇게 맥고모자를 쓰고 빠루를 마시고  
제주 색시를 생각해도 미역 내음새에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있  
습네. 조개껍질이 나이금\*을 먹는 물살에 날날이 키가 자라는  
처녀 하나가 나를 무척 생각하는 일과 그대 가까이 송진 내음  
새 나는 집에 아내를 잃고 슬피 사는 사람 하나가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영어를 잘하는 총명한 사년생 금이가 그대네 흥원  
군 흥원면 동상리에서 난 것도 생각하는 것입네.

— 백석, 「동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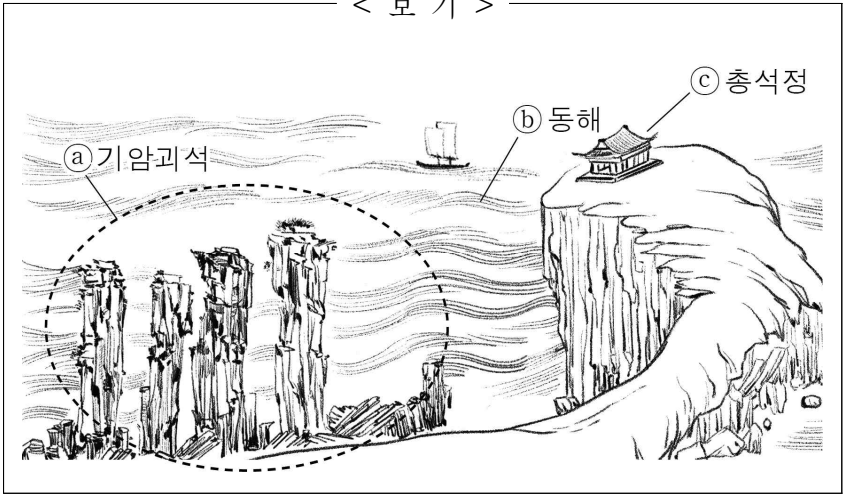
\* 빠루 : 맥주.

\* 나이금 : 나이를 나타내는 금.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명령적 어조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다른 사람을 부르는 방식으로 바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23. <보기>를 활용하여 (가)의 화자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상 상황이 좋을 때 ㉠을 찾아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군.
- ② 배를 타고 ㉡의 한 곳으로 이동해 다른 방향에서 경치를 구경하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군.
- ③ 천상의 인물과 지상의 인물이 협력하여 만든 결과물이 ㉠라고 인식하고 있군.
- ④ 뛰어난 풍경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를 소재로 삼아 시를 창작한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⑤ 돌 중에서는 ㉠가, 물 중에서는 ㉡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군.

24.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의 ‘신월’은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제4수>의 ‘남’은 화자의 삶을 지켜보며 그에 대해 정당한 판단을 내리는 인물로 볼 수 있다.
- ③ <제6수>의 ‘술’은 자연과 어울리며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생활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제1수>의 ‘석양’과 <제6수>의 ‘퇴’는 모두 학문 수양에 힘쓰도록 깨우침을 주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제4수>의 ‘검다 희다 하나니’와 <제6수>의 ‘놀고’는 모두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5.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황에 따라 의성어를 다채롭게 구사하여 현장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연상을 통해 다양한 대상을 열거하며 공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말줄임표를 통해 과거의 연인과의 재회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들을 비교하며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6.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위치한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은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글쓴이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 ③ ㉡은 아이들이 파도를 피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농촌 생활의 즐거움을, ㉡은 어촌 생활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는 특정한 장소에 대한 체험을 다룰 때 주로 풍경이나 자연물과 관련한 정서적 반응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거주할 때 나타나는 삶의 자세나 자신이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가)는 작가가 총석정 일대를 기행한 감흥을 노래하며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떠올린 것이고, (나)는 임실에 은거하던 작가가 한가롭게 지내는 생활이나 주변 자연물에 대한 친근감을 노래한 것이다. 그리고 (다)는 함흥에 체류하던 작가가 인접한 동해의 매력을 전하며 흥취를 드러낸 것이다.

- ① (가)에서 화자는 ‘천하의 두 총석은 응당 다시 없으려니’라며 자신이 기행한 총석정 일대의 경치에 대한 경탄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에서 화자는 ‘천 리를 멀다 말고 결단코 찾으리라’라며 총석정 일대의 장관과 관련지어 벼슬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떠올리고 있군.
- ③ (나)에서 화자는 ‘시름 풀자 하노라’, ‘고산 불고정이 좋아 늙는’이라며 불고정에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며 한가롭게 지내는 삶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군.
- ④ (나)에서 화자는 ‘달에 논들 어떠리’라며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연물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군.
- ⑤ (다)에서 글쓴이는 ‘처녀 하나가 나를 무척 생각하는 일’, ‘그 영어를 잘하는 총명한 사년생 금이’라며 자신이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군.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별목정정(伐木丁丁)\* 이랬거니 아름답리 큰 술이 베어짐직도 하이 골이 울어 멍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웃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잘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건디란다 차고 울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 정지용, 「장수산 1」 —

\* 별목정정: 깊은 산에서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쟁쟁하고 나는 큰 소리.

\* 울연히: 홀로 우뚝한 모양.

(나)

초록으로 쓸어 놓은 마당을 낳은 고요는 새암가에 몽실몽실 수국송이로 부푼다

[A]

날아갈 것 같은 감나무를 누르고 앉은 동박새가 딱 한 번 울어서 넓히는 고요의 면적, 감잎들은 유정무정을 죄다 토설하고 있다

작년에 담가 둔 송순주 한 잔에 생각나는 건 이런 정오, 멸치국수를 말아 소반에 내놓던 어머니의 소박한 고요를 윤기 나게 닦은 마루에 꽃꽂이 앉아 들던 아버지의 묵묵한 고요,

초록의 군림이 점점 더해지는 마당, 담장의 덩굴장미가 내쫓는 향기는 고요의 심장을 붉은 진동으로 물들인다

[B]

사랑은 갇어도 가락은 남아, 그 몇 절을 안주 삼고 삼베울만치나 무수한 고요를 둘러치고 앉은 고금\*의 시골집 마루,

아무것도 새어 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고요가 초록바람에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오월의 날 비린내 나서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

[C]

— 고재중, 「고요를 시청하다」 —

\* 고금: 외롭게 홀로 자는 잠자리.

28.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름드리 큰 술’과 ‘베어짐직도 하이’를 관련지어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는 자연의 속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② ‘다람쥐도 좇지 않고’와 ‘멧새도 울지 않아’를 연달아 제시하여 시적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도 ‘웃고 올라간’ 행동을 제시하여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인물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 ④ ‘바람도 일지 않는’과 ‘심히 흔들리우노니’를 대비하여 시적 공간에 동화하지 못하는 화자의 내적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오오 건디란다’를 ‘차고 울연히’와 연결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9. [A]~[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새암’은 부푸는 ‘수국송이’의 모습에 비유되어 풍성한 생명력을 낳는 존재로 인식된다.
- ② [A]에서 ‘마당’을 물들인 ‘초록’은 [B]에서 점점 확산하여 ‘덩굴장미’의 색채와 어우러지며 계절감을 부각한다.
- ③ [B]에서 ‘초록’은 ‘마당’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묘사되어 마당에 ‘붉은 진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인식된다.
- ④ [B]에서 ‘마당’에 군림하던 ‘초록’은 [C]에서 ‘초록바람’으로 변주되어 다시 계절이 바뀔 것을 암시한다.
- ⑤ [C]에서 ‘초록바람’은 ‘오월’이 누설하는 것들을 감추어 줌으로써 ‘오월’의 신비로움이 지속되도록 한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시에서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인 ‘고요’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고요한 상태를 직접 드러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리를 활용하여 고요를 부각하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또한 고요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고요는 시에서 시적 분위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화자의 내면세계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① (가)의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눈 내린 겨울 달밤의 고요한 분위기가 드러나도록 한 것이겠군.
- ② (나)의 화자가 떠올린 추억 속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시적 상황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정오’의 고요에 어울리는 인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멍아리 소리 찌르렁’과 (나)의 ‘동박새가 / 딱 한 번 울어서’는 모두 소리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고요한 상황이 부각되도록 한 것이겠군.
- ④ (가)의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나)의 ‘삼베울만치나 무수한 고요’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⑤ (가)의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는 화자 내면의 고요가 외부 세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의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는 외부 세계의 고요가 화자 내면의 동요를 잠재우게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 원수가 본진에서 군사를 쉬게 하더니, 이윽고 ㉠ 일색이 저물께 이르러 원수가 장대에서 몽사(夢事)를 생각하고 군사를 지휘하더니, 과연 **세찬 물결**이 진중으로 달려들거늘, 촉날의 홍계인 줄 알고 물을 피하여 동으로 가는 체하다가 가만히 ㉡ 운곡에 들어가 군사를 쉬게 하고 동정을 살피니, 촉날이 과연 기병을 거느려 원수의 뒤를 따라 운곡을 지나거늘, 원수가 재촉하여 촉날의 추격 병을 급습해 죽이고 급히 ㉢ 반운산에 들어가 매복하니라.

이때 촉날이 원수를 따라 동편에 이르니, 굴막대의 복병이 일시에 일어나 고각함성이 진동하며 화살이 비 오듯 하니, 촉날의 군사가 복병인 줄 알고 접전치 아니하고 스스로 요란하여 죽는 자가 태반이요, 촉날도 또한 가슴을 맞고 외쳐 왈,

[A] “굴막대는 나를 모르난다?”

하되, 함성 소리에 듣지 못하고 급습해 죽이니, 촉날의 군사가 십분 위태한지라. 촉날이 견디지 못하여 황망히 남은 군사를 거느려 평구로 달아나다가 석용달의 복병을 만나 남은 군사를 다 죽이고 겨우 십여 명 군사를 데리고 돌아가려 하다가, 운곡에 장 원수의 군사가 매복하였다 하여 협로로 들어 반운산 좌편으로 향하여 가더니, 원수의 복병이 내달아 적장 촉날을 에워싸고 원수가 참사검을 들고 대호 왈,

“촉날 적자(賊子)\*야! 간계로 나를 해하려다가 네 꾀에 너의 군사가 패물하였으니, 무삼 면목으로 너의 왕을 보려 하난다?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네 죄를 속(贖)하라.”

말이 끝남에 참사검을 들어 버히려 하니, 촉날이 급히 철궁을 들어 칼을 막다가 오른팔이 맞아 철궁과 함께 떨어지거늘, 다시 칼을 들어 **촉날의 머리**를 버혀 들고 말을 몰아 적진에 돌입하여 좌우충돌하여 적진 장졸을 풀 버히듯 하니, 선우의 군중(軍中)이 대란하여 향오를 차리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거늘, 원수가 **크게 외쳐** 왈,

“촉날이 이미 죽었으니, 반적 선우는 빨리 나와 나의 칼을 받으라.”

하고 사면으로 짓치다가 ㉣ 날이 밝기에 본진으로 돌아오니라.

이때 선우가 장대에 올라 바라보니, 촉날 명장(明將)을 따라가다가 진중이 대란하며 명진 장졸에게 대패하여 촉날이 명원수의 손에 죽고 남은 장졸은 흩어져 달아나거늘, **대경실색하여** 성주 남문을 열고 군사를 거느려 달아나거늘, 원수가 선우의 달아남을 보고 기병을 거느려 따를새 선우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가서 남해에 다다라 배를 타고 **교지국**으로 달아나거늘, 원수가 제장과 의논 왈,

“이제 선우가 교지로 달아나니 만일 죽이지 않으면 후환이 되리라.”

하고 승첩한 사연을 천자에게 아뢰고, 남해 태수에게 전령하여 선척을 준비하여 타고 선우를 쫓아가니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장 원수가 남쪽의 선우와 싸우는 틈을 타 북쪽의 흉노가 중원을 침범해 천자가 금릉으로 피한다. 이때 이대봉이 백운암에서의 수련을 마치고 금릉으로 와 참전한다.

흉노왕이 장대에 높이 앉아 황제의 항복하러 나옴을 보고 대희하여 진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니, 뜻밖에 진중이 대란하며 일원 소년 대장이 번개같이 달려들며 한칼로 목특남을 베

어 들고 진중에 횡행함을 보고 대경하여 중군장 동돌수로 접전하라 하니, 동돌수가 그에 응하여 말을 타고 나갈새 좌수에 패룡검을 들고 우수에 철퇴를 쥐고 능운마를 채쳐 진중에 달려드니, 사납게 흘겨보고 머리카락이 위로 뻗쳐 소리를 벽력같이 질러 왈,

“네 천하 장군 동돌수를 모르난다? 하늘이 나 같은 영웅을 내심은 너를 사로잡아 우리 황제가 통일지공을 이루게 하심 이거늘, 너는 무삼 재주 있관대 천의를 거슬러 혼자 말을 타고 진중에 들어와 감히 충돌하난다? 너의 머리를 버혀 우리 선봉의 원수를 갚으리니 빨리 나와 나의 칼을 받으라.”

말이 마치지 못하여서 대봉이 청룡도를 들어 동돌수의 패룡검을 두 조각에 내어 진 밖에 던지니, 동돌수가 더욱 분노하여 철퇴를 들어 대봉을 바라고 던지니, 대봉의 눈이 밝은지라 몸을 기울여 피하고 다시 싸워 십여 합에 승부를 결지 못하더니, 동돌수가 군사를 재촉하여 깃발을 두루니, 진이 홀연 변하여 팔문금사진이 되니, 대봉이 **진중에 싸여** 벗어나지 못할지라. 대봉이 냉소하고 진언을 엄하여 후토신장과 기백뇌공\*을 부르니, 문득 ㉤ 읍산한 구름이 자욱하며 천지 어둡고 캄캄하고 대풍이 일어나며, 급한 비 크게 오며 뇌성이 진동하여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니, 적진 장졸이 황겁하여 능히 향오를 차리지 못하고 정신을 진정치 못하여 금사진이 변하여 추풍낙엽같이 사방으로 흩어지거늘, 대봉이 정신을 가다듬어 오추마를 채를 치며 청룡도를 높이 들고 남으로 향하여 주작장군을 파하고, 말을 돌리어 북으로 향하여 현무장군을 버히니, 앞의 군사는 뒤의 군사 죽는 줄 모르고, 서편 장수는 동편 장수 죽는 줄 모르더라. 대봉의 칼이 번듯하며 **동돌수의 머리**를 버혀 칼끝에 꿰어 들고 장대에 달아 **크게 외쳐** 왈,

“반적 흉노왕은 빨리 나와 항복하라. 만일 더디면 동돌수와 같이 머리를 버히리라.”

하고 진문 밖에 나와 의기양양하더라.

㉥ 이윽고 운무가 흩어지며 천지 명랑하거늘, 흉노왕이 군사를 살펴보니 백만지중에 주검이 산처럼 쌓여 있어서 남은 군사가 불과 오 천여 명이라 사방으로 다 도망하는지라. 흉노왕이 **대접하여** 달아나거늘, 대봉 공자 말을 채쳐 흉노왕을 따라 **앵무주에** 다다르니 ㉦ 중천에 있던 해가 거의 서산에 걸리더라.

— 작자 미상, 「이대봉전」 —

\* 적자: 불충한 사람.  
\* 후토신장과 기백뇌공: 토지, 바람, 천둥, 번개 등을 관장하는 신들.

3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우는 촉날이 대패하고 죽자 장 원수와 계속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군.
  - ② 장 원수는 선우가 달아나게 되면 뒷날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군.
  - ③ 흉노왕은 황제가 항복하러 할 때 대봉이 공격할 것을 미리 짐작했군.
  - ④ 동돌수는 자신의 진중으로 혼자 공격하러 들어온 대봉에 대해 분개했군.
  - ⑤ 대봉은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며 흉노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했다.

32.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인물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 ② ㉠과 ㉢에서 배경이 어두워지는 것은 각각 내적 갈등의 시작과 종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립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과 ㉣에서 하늘이 밝아지는 것은 사건의 반전을 예고하고 있다.
- ④ ㉢으로 드러난 인물의 역량이 전투에서 발휘된 결과가 ㉤ 이후에 확인되고 있다.
- ⑤ ㉤의 변화가 인물에 의해 인위적으로 일어난 것임이 ㉢에서 해의 위치가 바뀐 것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33. ㉠, ㉢에 주목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 원수는 ㉠에 이르러서야 축날의 간계를 간파했지만 ㉢에서 축날과 싸워 우월한 지위를 점했다.
- ② 장 원수의 군사들이 ㉠에 있다가 ㉢로 간 것을 축날이 모름으로써 전황이 장 원수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 ③ 장 원수는 ㉠에서 축날의 기병들이 자신을 공격한 행동들을 ㉢에서 축날의 잘못을 꾸짖는 근거로 언급했다.
- ④ 장 원수는 ㉠로 축날의 군사들을 유인하여 ㉢로 축날의 군사들이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
- ⑤ 장 원수의 군사들을 축날의 군사들이 ㉠에서 ㉢로 뒤쫓아옴으로써 축날의 군사들이 골막대의 복병을 만나게 되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대봉전」에는 여자 주인공인 장애황과 남자 주인공인 이대봉의 서사가 각각 전개되는 부분이 있다. 두 서사는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세부 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서로 구별되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은 장애황이 선우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군담과 이대봉이 흥노왕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군담을 통해 잘 드러난다. 두 군담의 서사는 별개의 공간에서 전개되면서 남녀 주인공의 특성을 나타내어 두 주인공의 대등한 면모를 유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① 장 원수는 ‘세찬 물결’로, 대봉은 ‘진중에 싸’여 위기에 처한 것은 인물을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한 세부 요소의 측면에서 두 군담에 서로 구별되는 요소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 ② 장 원수가 ‘축날의 머리를 버’히는 것과 대봉이 ‘동돌수의 머리를 버’히는 것은 무용을 떨치는 측면에서 두 인물이 대등한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 ③ 장 원수가 선우에게 ‘크게 외쳐’ 한 말과 대봉이 흥노왕에게 ‘크게 외쳐’ 한 말은 각각 장 원수가 예지 능력을 지니고 있고 대봉이 술법에 능한 인물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 ④ 장 원수에게 패하여 선우가 ‘대경실색하여’ 도망치는 것과 대봉에게 패하여 흥노왕이 ‘대겁하여’ 도망치는 것은 두 군담의 서사 구조가 유사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 ⑤ 장 원수는 선우와 싸우다가 ‘교지국’으로, 대봉은 흥노왕과 싸우다가 ‘앵무주’로 이동하는 것은 두 군담이 별개의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